

결핵과 당뇨병

민천기/ 서울의대 교수, 국제당뇨병연합 서태평양 지구회장

결핵이 빈곤한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인데 반하여 당뇨병은 풍요로운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명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양식의 도시화, 서양화에 따른 과식, 운동부족, 스트레스 과중 등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 당뇨병은 우리몸속의 인슐린 작용이 부족하여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혈당을 그대로 장기간 내버려 둔다면 여러가지 골치아픈 합병증이 속발되어 실명(失明), 신부전(腎不全), 하지절단(下肢切斷)같은 끔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동맥경화의 악화로 심장마비,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하기도 한다. 당뇨병의 증상은 병의 경중(輕重)과 시작 후 경과된 시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기에는 전혀 아무런 증상도 없는 경우가 많고 좀 심한 경우라면 다뇨(多尿), 빈뇨(頻尿), 갈증(渴症), 다음(多飲)이 나타난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급작스런 체중감소(1, 2개월에 10kg이상)를 호소하기도 한다. 여자들에게서는 심한 음부(陰部)

의 가려움증으로 부인과에서 당뇨병으로 판명되는 수도 있다. 합병증이 생기면 그 합병증의 증세가 나타날 것이다. 당뇨병에는 젊은층에서 발생되어 인슐린 주사를 꼭 필요로 하는 소위 인슐린 의존형(依存型)과 중년후에 주로 발생되어 인슐린 주사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소위 인슐린 비의존형(非依存型)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슐린 의존형은 극히 드물며 대다수의 환자는 인슐린 비의존형이다. 당뇨병의 진단에는 혈액이나 뇨의 검사가 꼭 필요하다. 식전 식후의 혈당치 검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포도당 부하검사(負荷檢査)가 필요할때도 있다. 합병증 여부를 알기 위하여 눈검사, 심전도(心電圖)검사, 각종 X선검사, 혈액의 각종 생화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당뇨병은 체질(體質)에 뿌리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병을 완전히 뿌리뽑는 완치(完治)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혈당치 조절을 위시하여 일생동안 요양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인슐린요법 등이 포함된다.

긴세월에 걸치는 요양이기 때문에 환

이 글은
세계 결핵의 날 행사중
기념강연때 발표된 민
현기 교수의 강연내용
을 게재한 글이다.



자 자신이 당뇨병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하며 의사와 의논하여 자기관리를 스스로 해나가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당뇨병환자는 결핵 뿐 아니라 여러가지 감염(感染)질환에 걸리기 쉽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몸의 모든 세포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이다. 세균이 우리몸에 들어 오게 되면 백혈구가 모여들어 그 세균을 잡아먹게 되는 것인데 당뇨병환자에게는 백혈구의 이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세균이 계속 번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은 생활환경의 개선과 화학요법의 발달에 따라 환자수가 감소되고 현재 총인구의 유병률은 2%이하로 되어있지만 당뇨병환자중의 결핵유병률은 아직도 약7%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1960년경의 16%에 비하면 많이 감소된 것이지만 아직도 결핵환자중 5~10% 정도는 당뇨병을 가진 사람으로 판명되고 있다. 당뇨병환자에게서는 폐결핵 뿐 아니라 폐외결핵 특히 요로(尿路)결핵이 많으니 여기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당뇨병환자의 결핵에 대해서는 화학요법과

동시에 당뇨병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혈당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학요법의 효과도 불충분하게 되고 균음성화(菌陰性化)에도 보다 장기간이 소요되게 된다.

혈당을 조절함에 있어 대부분의 활동성 결핵환자는 인슈린요법이 필요하게 된다. 활동성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도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는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핵이 치유된 후라도 당뇨병은 계속되는 것이니 환자들은 반드시 철저한 당뇨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전국 큰 종합병원에는 당뇨교실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결핵이 국민보건상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지만 그 유병률이 2%이하로 감소되고 있다. 당뇨병은 현재 2%이상의 유병률을 가지고 증가추세에 있는 또하나의 국민병이라 하겠다. 결핵관리사업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뇨병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몽, 발견, 관리 등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